

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

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 해소 방안

2023. 10. 6.(금) 16:30-19:00

주관: 광주여성가족재단

배경

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공고화에 따라 임금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왔지만, 가정 내 무급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‘아무나 하는 일’, ‘허드렛일’로 무가치하게 평가되거나 저평가되어왔다.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가정 내 가사노동(출산, 돌봄 노동 포함)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재생산,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이며, 모든 노동자(가족 구성원)의 생산 능력을 제고시키고, 국민 생산/재생산(출산 및 돌봄)에 기여한다는 ‘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사회적 가치 평가’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. 특히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미국 등에서 가사노동의 임금 투쟁 및 캠페인 운동이 확산되었고, ‘노동’의 의미 부여와 ‘가치’ 제고를 위한 사회적 평가 및 정책화 작업이 이루어졌다. 우리나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의 일환으로 ‘가계 생산 위성계정(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, 통계청)’이 발표되었고,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.9조 원(명목 GDP 대비 25.5%),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 949만 원(여성 1,380만 원, 남성 521만 원)으로 확인된다.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(정서적) 가치, 즉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 전반의 기획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정서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. 가사노동의 비물질적(정서적) 가치를 포함할 경우,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측정 방식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. 이에 ‘가정 내 가사노동의 불평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’에 대해 국제회의를 추진하고자 한다.

목표

- 첫째,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외 사례를 통해 광주시 과제를 확인한다.
- 둘째,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 및 젠더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- 셋째, 가정 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의 효과에 대해 공유한다.



중점 논의사항

첫째, 가정 내 가사노동 중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비물질적(정서적) 가사노동의 평가는 어떻게 가능한가?

둘째, 가정 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적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?

셋째, 가정 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질 때, 가정 내 젠더 불평등 해소와 가정 밖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?

넷째, 해외 가정 내 가사노동 관련 정책 사례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무엇인가?

